

# 글로벌 인재확보 나선 SK이노 “2년내 R&D 인력 2배 확대”

美 글로벌 포럼 성황리 마무리  
탈탄소 미래 비전, 인재들 주목

김준 총괄사장 “기술확보 위해  
훌륭한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

세계적으로 ‘탈탄소’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탈탄소 미래 비전’을 통해 글로벌 인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글로벌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포럼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있는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SK그룹 차원에서 운영됐지만 올해 처음으로 SK이노베이션이 주최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파이낸셜스토리 전략을 바탕으로 배터리, 친환경 소재와 같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신사업 경쟁력을 키울 핵심 인재를 직접 확보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 사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포럼’에서 현장 참석자들에게 SK이노베이션의 파이낸셜스토리 전략과 회사의 미래 비전 등을 소개 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포럼을 주관했다. 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글로벌 포럼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글로벌 포럼에는 미국 12개 대학 및 연구소로부터 초청한 석·박사, 친환경 소재·배터리 사업분야 글로벌 기업 재직자 등 핵심 인재와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지동섭 SK온 대표,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 이장원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연구원장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김준 총괄사장은 “SK이노베이션이 ‘탄소에서 그린’으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터리,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기술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 “SK이노베이션은 2023년까지 연구개발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내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 역량 내재화,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외부와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을 통해 전략의 속

도와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동섭 SK온 대표는 지난 1일 독자 경영을 시작한 이후 첫 행보로 SK온의 배터리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글로벌 핵심 인재 영입에 나섰다. 그는 “전문 인재 확보에 기반해 배터리 사업의 답체인지를 통해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준 환경과학기술원장은 “탄소사업에서 그린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친환경 미래 성장 연구개발 및 차별적 기술 솔루션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원 배터리연구원장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력을 소개하면서 “배터리재활용사업 등 SK온의 신규 사업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수 인재 확보는 필요가 아닌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의 세션에서는 ▲배터리/차세대배터리 ▲환경 ▲친환경 소재 등을 주제로 현장 참석자와 SK이노베이션 경영진 사이에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두산, PCB 핵심 소재 동박적층판 공개

국내최대 전자회로기판 전시회 참가  
하이엔드 CCL 라인업·기술력 뽐내

두산이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등의 부품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CCL) 기술력을 공개한다.

두산은 오는 6~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1 국제전자회로 및 실장산업전’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회로기판(PCB) 관련 전시회 KPCA는 국내외 PCB 기자재 및 제조업체, 설비업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두산을 비롯해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250여 개사가 참가한다.

두산은 이번 전시회에서 스마트폰, 5

G 통신장비, 데이터센터, 칩셋 등의 전자기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PCB의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CCL)을 선보인다. (주)두산의 CCL 제품은 크게 ▲패키지용 CCL ▲통신 장비용 CCL ▲연성 CCL(FCC)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연료 전지용 전극과 PFC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패키지용 CCL은 반도체 칩과 메인 보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반도체를 보호하는 소재로 DRAM, Nand 등 메모리 반도체용과 CPU, GPU, AP 등 비메모리 반도체용으로 구분된다. 해당 제품은 고온의 반도체 공정도 견딜 수 있으며, 외부 전기장에 반응하는 민감도인 유전율을 낮춰 전기적 간섭을 줄임으로써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서버, 통신 기지국 등 유무선 통신 장비용 CCL은 고주파 영역에서도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하고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세계일류상품에 등재된 바 있다.

연성 CCL(FCC)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의 스마트 기기 및 웨어러블 제품에 적용되며, 해당 장비들이 점점 크기와 무게가 감소하고 통신 속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얇고 유연율이 낮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두산은 CCL 제품 외에도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극 생산을 통해 연료 전지 사업의 내재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최소 단위인 셀을 연결하는 소재인 PFC를 개발해 양산을 앞두고 있다. /양성운 기자

## 클릭 한번으로 차량 SW 업데이트 GM, 진화형 플랫폼 얼티파이 공개

각종 기기 애플리케이션 연동  
2023년부터 차세대 차량 적용

제너럴 모터스(이하 GM)가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얼티파이를 발표했다.

4일 GM에 따르면 얼티파이는 GM의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얼티파이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사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각종 기기 애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 내 소프트웨어에 쉽게 접근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GM은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편리함과 디지털 라이프에 더욱 가까워진 일상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로열티 제고 전략을 구체화했다.

얼티파이의 기능은 GM의 진화형 전기 아키텍처인 VIP(Vehicle Intelligence Platform, 차량 지능 플랫폼)를 기반으로 한다. 기존 무선 기능, 풍부한 데이터 접근, 강력한 사이버 보안 및 빠른 처리 능력을 넘어 주요 소프트웨어를 재정립해 사용자가 더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구현했다.

마크 로이스 GM 사장은 “GM은 수십 년 동안의 차량 소프트웨어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견고한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며 “고객들은 얼티파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빠르게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능과 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GM 차량 사용자는 얼티파이를 통해 스마트폰과 같이 클릭 한 번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사용자 맞춤 설정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기능을 선택, 저장 및 타 기기와 연동할



GM 진화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얼티파이.

수 있다.

또 사용자는 얼티파이의 어드밴스드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디지털 라이프의 주요 기능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 얼굴 인식으로 시동을 걸 수도 있으며, GPS 정보를 기반으로 스포츠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설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자동차와 스마트홈 기술을 연동해 집안의 온도 조절이나 보안 시스템 등의 설정도 가능하다.

클라우드 연결은 차량-사물 간 통신(V2X)에까지 확장돼 도로 인프라와 통신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위험 또는 도로 상황 변화에 대한 경고를 주고 교통 신호 시간을 재기도 한다.

스콧 밀러 GM 소프트웨어 담당 부사장은 “이 기술의 핵심은 여러 기기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유연함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가능성에 있다”며 “GM의 개발자들은 얼티파이의 폭넓은 연동과 더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티파이는 2023년부터 출시될 GM의 차세대 내연 및 전기 자동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신제품 ‘프라엘’... 피부탄력 5가지 핵심기술 적용

LG 프라엘 인텐시브 멀티케어 출시  
여러종류 피부 관리위한 올인원 제품

LG전자가 올인원 ‘프라엘’ 신제품을 선보이며 피부관리 기기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

LG전자는 4일 피부 탄력을 위한 5가지 핵심 기술을 한 곳에 담은 ‘LG 프라엘 인텐시브 멀티케어’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신제품은 피부 탄력과 진정, 화장품의 다양한 영양 성분 흡수까지 높여주는 복합 탄력 관리기이다. LG전자는 신제품을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피부 관리기기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올인원 제품



신제품 ‘LG 프라엘 인텐시브 멀티케어’를 비롯한 LG 프라엘 제품들. /LG전자

라고 설명했다.

신제품은 Y자 모양으로 손잡이 위쪽에 피부 탄력과 화장품 흡수를 돕는 ‘인텐시브 케어 헤드’와 피부 진정을 돕는 ‘물링 케어 헤드’가 달려있다. 소비자는 인텐시브 케어 헤드에 달린 ‘아이 케어

헤드’로 눈가, 입 주변 등 굴곡진 부위도 관리할 수 있다.

LG전자는 신제품에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한 5가지 핵심 기술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피부 진피층 아래까지 도달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고주파’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해 피부 속과 겉 탄력을 개선하는 ‘250마이크로암페어 수준의 미세전류’ ▲저주파 초음파를 활용하는 ‘소노포레시스’ 기술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 화장품 영양 성분과 수분 흡수를 돕는 ‘이온토포레시스’ 기술 ▲모공 축소와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물링 기능’ 등이다.

/한창대 기자 cdl1@